



시장현황(2)

국내 GHP 2004 시장 전망



GHP의 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지난 98년 국내에 소개된 GHP는 보급기간에 비해 급속도로 전파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보급 초기 GHP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에너지 절감 및 가스수요량이 동고하저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며 본격적인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출혈경쟁 심화 △A/S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올해 GHP 시장은 전년보다 30% 향상된 4,000대 이상 보급될 것 전망된다.

□ GHP 진출 업체들

현재 일본에서 GHP를 국내에 공급하는 공식적인 업체는 5개사로 지난해 중순부터 히타치가 신성엔지니어링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GHP 시장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최초로 이송산업에 보급했던 산요사는 국내에 AF테크놀러지, 이송산업, 롯데기공, LG전선 등 4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이신정기는 삼성물산, 두우종합기술단,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린나이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는 일본린나이를 통해 OEM으로 린나이코리아에 공급하고 있다. 안마는 삼천리ES와 독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쓰비시는 세원기연과 범양냉방 등 2개사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히타치공조와 신성엔지니어링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산요와 공급계약을 지난해 12월말로 계약을 끝내 ESCO에서의 GHP 보급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산화된 GHP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



선과 센추리는 필드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장 상황은

GHP는 타 냉난방기에 비해 고가의 장비다. 이에 초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지원금과 설계지원금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메리트를 갖게 됐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올해 GHP 시장 가격과 이윤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뤘다. 공사금액이 높은 건수일수록 이윤이 적고 실외기 2~10대 등 비교적 적은 공사에서 이윤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GHP 업계에 따르면 대학교, 종교단체의 GHP 보급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실적의 2배를 넘어선 3,200여대의 GHP가 보급됐다고 밝혔다. 냉동공조공업협회가 집계한 10월말 현재 검사실적은 약2,000여대로 집계됐다.

올해 시장은 민수물량이 전체시장의 3/4를 주도했으며, 조달청 관수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수물량에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수주물량에서 두우종합기술단과 동원엔지니어링 간의 경쟁도 치열했다. 지난해 관수물량은 약 700여대가 나왔다. 관수물량의 경우 적격심사와 최저가낙찰 등으로 적격심사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물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두우종합기술단과 동원엔지니어링 양사가 거의 모든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별로 보면 전체시장의 약 50%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물량이 집중된 대학교가 전체 학교 시장의 80%를 육박하고 있어 가장 큰 시장으로 형성됐으며 병원, 오피스빌딩이 학교 뒤를 이었다. 또한 대규모 물량은 아니지만 일종의 틈새시장으로 실외기 2~10대 미만의 교회 등 종교단체의 수주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GHP 실적별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실적을 올려준 학교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데 GHP 업계가 동감하고 있다. 이는 저가경쟁으로 인한 출혈로 풀이된다.

반면 틈새시장으로 부상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오히려 이익 창출면에서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시장 전망

지난해 GHP시장은 약 3,200여대가 보급됐다. 민수물량이 주도한 가운데 관수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약 30%가량이 적게 나오면서 GHP 보급에 약간의 차질을 빚었다.

올해 GHP는 약 4,500여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약 30%의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2005년엔 6,000대, 2007년 8000대, 2010년엔 1만5,000여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급확대에 있어 국산 GHP의 출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GHP는 현재 센추리와 LG전선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어 성능적인 부문만 일본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면 국산 GHP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고 나아가 전체 GHP 보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

GHP의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를 비롯해 대학교, 병원, 오피스텔,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냉난방기기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지난해 말 드디어 A/S 문제가 발생한 현상이 나왔다. 이미 예견된 부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A/S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당시 사고는 시공의 기본인 질소 블로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불량시공이 발생한 것은 GHP 시공시 질소 블로잉 작업이 필수이나 저가 수주로 인해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해 질소 블로잉 작업을 하지 않거나 일부 빼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GHP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에 철저한 시공을 위한 현장감리감독 강화와 시공인부 교육, 철저한 A/S 체계 구축,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지난해 중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엔화의 강세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외환전문가에 따르면 엔화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GHP 수입업체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GHP 제품가격은 엔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대금 결제일이 되면 엔화 인상분만큼 국내 보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GHP 수입사의 경영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GHP와 타기기 조합

대학교에서의 GHP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교 수주물량을 보면 BAS를 연계한 수주가 늘고 있다.

BA(Building Automation) system은 건물 각 설비의 종합적인 제어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조, 열원, 위생, 수변전 등 건물의 운전상태 및 이상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GHP와 연동, 운영됨으로써 제어 관련 및 설비 시공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다른 건물에 GHP 설치 시 통합 관리 운용에 용이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학교에 BA system에 GHP를 연계한 시설을 수주한 삼성물산은 고려대 정경관에 실외기 21대를 기존의 BA system에 연동하는 시설공사를 마쳤다. 또 원광보건대학에 설치된 GHP는 모든 실내기의 운전상태 감시, 원격조작, 실별 요금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물산 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한글화된 원격조작 소프트웨어를 탑재, 기존 일본어 프로그램의 불편함을 개선했다”며 “기존 BAS설비가 없는 곳도 설치가 용이한 시스템으로 실내기 2,000대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또 GHP와 공기조화기를 조합한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두우종합기술단과 SAC, 삼성물산이 관련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상태며 층간이 높은 교회나 강당, 체육관을 중심으로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